

<p>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p> <hr/> <p>Общественно-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САХАЛИНСКАЯ ПЕЧАТА</p> <p>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p>2018년 1월 12일(금) (음력 11월 26일) Пятница 12 января 2018г. № 1(116768) 1949년 6월 1일 창간 ----- Цена свободная</p>
---	---	--



▲ 1월 13일은 러시아에서 출판절을 기념한다. 사할린에서 가장 위신있는 <소베츠키 사할린>신문사 류드밀라 스페파네츠 기자. 그녀는 사할린한인행사도 많이 취재한다. 언론인들의 모임에서. (이예식기자 촬영)

단신

9일 남북이 북한의 올림픽 참가와 군사회담 개최에 합의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로 지난 9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남북고위급 회담이 성사된 가운데 회담이 진행되었다. 늦은 저녁에서야 남북고위급회담의 합의에 따른 공동보도문이 언론에 전해졌다.

1. 남측 지역의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와 패럴림픽대회의 성공적인 진행과 민족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북측의 적극적인 협력.
2. 남북의 현 군사적 긴장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군사당국의 회담 개최.
3. 남북선언을 존중하여 남북관계에 우리민족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에 나갈 것.

사할린주집행관관리국 국장 대행으로 아.코노노브가 부임

연말부터 사할린주집행관관리국 국장 대행으로 안드레이 코노노브가 부임했다. 2012년부터 집행관관리국 국장을 맡았던 엘레오노라 프로토포포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캄차트카주집행관관리국 국장으로 임명되었다.

안드레이 코노노브는 국장 대행은 섬지역에 오기 전에는 알타이공화국 집행관관리국 국장 대행(2016년)을 역임했다.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 신년 인사말씀

사랑하는 해외 동포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8년 올해는 동포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이 더 나아지고, 가정에도 웃음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에는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 모두 잘 이겨냈습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온 국민이 마음을 하나로 모았고, 큰 걸음을 시작했습니다.

경제도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무역 1조 달러 시대를 다시 열었고, 3%대 경제 성장률을 회복했습니다. 정치적 혼란과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인한 안보위기 상황에서 만들어낸 결실 이어서 더욱 값지고 귀한 성취입니다.

저는 동포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동포 한 분 한 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8년 새해, 국민의 손을

굳게 잡고 더 힘차게 전진하겠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면서 국민의 삶을 바꾸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최우선 국정목표로 삼아 국민 여러분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국민의 뜻을 더 굳게 받들겠습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일이 국민 통합과 경제 성장의 더 큰 에너지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새해에는 노사정 대화를 비롯한 사회 각 부문의 대화가 꽃을 피우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조금씩 양보하고, 짐을 나누면 더불어 잘사는 대한민국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해외 동포 여러분,

이제 평창올림픽과 패럴림픽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88서울올림픽 이후 30년 만에 치러지는 대회입니다. 평창을 더 많이 사랑하고 응원해 주십시오. 동포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이 평창의 성공을 만들 것입니다.

새해 동포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할린주, 폭설 후 제설작업 한창

지난 9-10일 이틀간 사할린에 첫 기록적 폭설이 지나갔다. 이번 폭설로 특히 돌린스크구역과 유즈노사할린스크시에는 강설량 또한 기록적이었다. 지난 10일(수) 올레그 코제마코 사할린주지사가 주재한 회의에서는 바람 초속이 20-30미터까지로 보고되었다. 눈보라로 인해 이틀간 도시 간 차량 통행, 항공기 운항, 와니노-홀스크 연락선도 정지되었다. 10일 유즈노사할린스크시에서는 모든 학교들과 유치원들도 휴교에 들어갔다. 그리고 일부 마을과 주거단지에서 정전도 있었지만 <사흐에네르그> 회사는 최대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냈다. 특히 스타로뉘스코예-마카로브구간, 아르센지예카-일리인스코예 구간 도로는 폭설로 차량통행이 폐쇄되었다.

9일에는 내린 폭설로 도로가 막히고 돌린스크구역 피르소워촌 근처 30여대의 차량들이 눈에 파묻혀 정체되었다. 이들을 구조하기 위해 유즈노사할린스크 비상사태성 구호대와 제설차

가 나서 6시간에 걸쳐 (유즈노사할린스크-피르소워촌 구간 78km) 구조했다. 이 구조작전에 올레그 코제마코 주지사도 직접 참여했다. 10일 오후 피르소워 부근에 맞물렸던 차량들은 유즈노사할린스크시에 도착했다.

10일에는 주내 도로 제설작업에 제설차량 140대,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제설작업에는 217대 차량이 나섰다.

주중양도시에는 월 기준 강설량의 60% 이상의 눈이 하루만에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10일에는 시내버스 일부가 오전에 운행을 시작했으나 많은 시민들의 출근이 불가하자 여러 회사들도 영업을 임시 중단하게 되었다. 차량도로들은 제설작업이 계속되었지만 주거단지 내에는 제설이 되지 않은 상태여서 같은

날 오후 차 주인들은 주택단지 내와 길가에 있는 차들을 눈에서 빼내는 작업을 시작했다.

유즈노사할린스크시에 본격적인 제설작업은 10-11일 밤부터 이루어진 가운데 300여대의



제설차량과 화물차들이 주요 도로에 제설작업을 진행했다. 제설작업 과정을 직접 올레그 코제마코 주지사와 세르게이 나드사진 시장이 지켜보았다.

10일 오후 5시에는 유즈노사할린스크항공로가 열려 항공기 운항이 재개되었고 11일에는 연락선 운항도 재개되었다. 현재 까지도 제설작업은 한창이다.

(본사기자)

새고려신문

2018년 신문주문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18년 상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을 계속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자를 애독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1개월 구독료는 79루블리 38코페이카입니다. 신문은 사할린 모든 우체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문 인덱스는 53740입니다. (본사 편집부)



사할린주한인회 결산회의에서

사할린한인들의 위상이 높아졌다

지난 6일(토)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인문화센터에서 주한인회 결산 컨퍼런스가 소집되었다. 회의에는 28명 운영위원 중 20명이 참석했다. 회의 의장으로는 김홍지 주노인회 회장, 서기로는 신연자 씨가 선정되었다.

의정에는 2017년 사할린주한인회 결산보고, 2017년 감사위원회 재정보고, 2018년 주한인회 계획안과 기타 문제가 올랐다.

주한인회 1년 결산보고는 박순옥 주한인회 회장이 했다.

2016년 12월에 주한인회 회장으로 선출된 이후 2017년에 주한인회는 많은 사업을 해왔다고 박회장은 보고했다. 모든 행사와 사업을 이 자리에서 소개하지 않고 주한인회 회장 후보로 나섰을 때의 선거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하여 보고를 하겠다고 박회장은 밝혔다.

우선적인 과제 중 하나로 사할린 한인 1세대들을 위한 사회적 지원이었다. 결산기간 동안 한국 국제보건의료재단 협력으로 2차에 걸쳐 1세대 사할린동포 47명은 가족 보호자들 32명이 함께 인솔하여 한국에서 무료 진료를 받았다. 지난 12월에 주한인회는 한국 국제보건의료재단 측과 만나 이 초청진료사업을 계속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올 2월에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과 한국국립의료원 대표단이 사할린에서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며 3-4월에는 1세대 중한 그룹이 진단과 치료를 받기 위해 한국으로 떠날 계획이다. 박회장에 따르면 현재 약 200명의 1세대가 한국에서 진료를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한인문화센터 내에는 1세대들을 위한 의료상담실이 자리하고 있다. 상담실 운영지원은 일본적십자사가 해왔는데 이번 일본 측으로부터 지원금이 11월 17일에야 전달되었다. 그동안 1년 내내 무사히 상담실 사업을 진행해올 수 있었던 것은 주한인회 측으로부터 돈을 차용해 의약품을 미리 구입해 둔 덕분이었다. 너무 늦어진 지원금에 대해서는 유즈노사할린스크 일본총영사가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다고 박회장은 밝혔다.

일본, 한국의 정례적 지원으로 2017년에는 75명이 한국을

일시방문했다. 그중 45명은 1세대이고 35명은 2세대(부모 사망 자녀)다. 이들 모두는 인천적십자사 병원에서 건강검진도 받았다.

영주귀국자 376명은 2017년에 역방문사업으로 사할린을 찾았다. 건강상태로 사할린을 방문하지 못하는 영주귀국자인 부모를 찾아 최초로 동포 2세대 254명이 한국(안산, 인천)으로 가서 부모님을 만날 수 있었다. 처음으로 시행된 사업이라 한국적십자사와 안산과 인천 사할린동포회측의 미약한 점이 많았다. 그래서 사할린 측에서는 254명의 서류가 아닌 400여 명의 서류를 처리하는 일로 명단을 7번이나 재작성해야 했다.

1세대들에 관한 사업을 하려면 물론 1세대의 명단(데이터)이 필요하다. 이 데이터는 2013년에 작성하여 해마다 재확인하고 있는데 사망한 분들도 있지만 1세대의 수가 감소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그 원인은 처음 데이터를 만들 때 명단에 올리지 않은 분들이 늦게 서야 등록하고, 또는 한국으로 영주귀국한 1세대들의 일부가 사할린으로 되돌아오는 데 있었다.

2015년부터 사할린한인문화센터에서는 1세대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재활센터 설립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현재 사업을 발의하고 추진할 그룹을 구성 중으로 2월에는 이 문제로 공청회를 열어 신문과 티비방송을 통해 널리 알릴 예정이라고 박회장은 전했다.

2017년에 주한인회는 사회적 기획 콩쿠르에 2번 참가하여 주정부의 지원금(그라트)을 받아 <한 가정에서> 기획 (사할린국립대와 한민족문화 알리기, 색칠동화 출판, 동화 그림그리기, 우수 그림으로 달력 발행, 이예식 새고려신문사 기자의 <사할린한인. 귀환> 사진전 개최; 홀스크, 돌린스크 등 민족 간 축제행사, 공연)과 <미주호촌의 비밀> 기획 영상제작(다큐멘터리 제작, 27인 한인피살자 추념비 현장 정돈사업 등)을 추진했다. 결과로 주한인회는 우수 사회적 기획의 실시로 주정부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한인피살자 추념비에 대한 다큐멘터리에 관해서 박회장은 이 다큐를 앞으로 한국

어로 번역할 계획이라며 한국어 자막처리는 찬조로 우리말방송에 부탁했다고 알렸다.

27인 한인피살자 추념비의 현장은 현재 홀스크지역 정부의 관리구역으로서 한국 측(안산시 사업가)에서도 현장 작업(주차장, 의자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홀스크시에서는 이 추념비가 도로에서 보이도록 큰 표지판도 설치해놓았다.

또한 한인문화센터에는 사할린한인 상설전시관을 조성했다.

박순옥 회장은 주한인회 회장 선거 시 당선될 경우 꼭 모든 지방한인회를 찾아가겠다고 약속을 한 바 있지만 모든 지방을 다 방문하지는 못했다고 고백했다. 하지만 가장 문제가 많은 한인회를 찾았다고 했다. 스미르니흐, 우글레고르스크, 보쉬냐코워, 위스토크, 사흐초르스크, 체호브, 크라스노고르스크, 아니와, 홀스크, 코르사코브이다. 일부 한인회에서는 결산선거회의가 있었고 지방 한인회들은 작년에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왔다고 박회장은 강조했다. 성공적으로 활동한 지역으로 토마리, 돌린스크, 홀스크, 마카로브 한인회 회장들에 대한 칭찬도 아끼지 않았다. 마카로브에는 제5회 <우리는 함께>민족축제, 코르사코브에는 방향의 언덕에 사할린희생동포위령조각담 제작 10주년 행사, 네웰스크에서는 태권도 세미나 등을 했다고 박회장은 보고했다.

지난해에는 지방한인회 지원으로 69만5000루블리를 지출했는데 앞으로도 지방한인회 지원에 신경을 쓰겠지만 이 지원금은 식사비용이 아닌 행사 및 기획 추진에 썼으면 좋겠다며 소회를 피력했다.

올해 주한인회 기획에 참가하고자 하는 지방한인회에게 응답을 달라고 했는데 지원프로젝트에 항상 참가하는 지방한인회와 아니와 한인회 외에는 어떤 한인회도 아직 신청을 하지 않았다며 박회장은 유감을 표하고 현재 주한인회는 두 가지 기획을 작성했다고 했다.

지난해에 주한인회는 수준 높은 국제행사도 진행했다. 지난 5

월에 사할린에서 개최된 세계한민족여성재단의 국제컨벤션이다.

박회장은 한인문화센터 활동(할머니 노래교실, 한지교실, <아리랑>무용단, <하늘>사물놀이 그룹)도 소개하고 문화센터에서는 청년 2명을 고용했으며 지난해에는 문화센터 내에 수리를 마쳤다(이미 보도된 내용)고 했다.

마침내, 주한인회 청년부가 설립되었다. 사실 주한인회 활동에 참가희망을 표했던 젊은이들이 주한인회 선거회의에 참석한 후 치열한 감정의 경쟁적 발언을 보고는 한인회 사업에 참가할 마음이 사라졌다고도 했다. 그러나 얼마 전에 이 청년부를 이끌어 가겠다는 지원자가 나왔다. 바로 박현성(알렉산드르)이다. 나이 33세로 사할린국립대를 졸업하고 현재 여러 사업을 하고 있으며 사할린주청년정부 위원이고 <몰로다야 그와르지야>단체 리더로 활동하고 있다.

주한인회의 주요 행사 중 하나였던 것은 사할린한인 대표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블라디보스토크 초청오찬 참석이었다.

박회장은 사할린한인들의 위상이 많이 높아져 사할린주 내 단체 중에서, 정부기관 중에서, 사회계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고 했다. 바로 이번 광복절 행사에서 사할린주정부로부터 사할린한인 10명이 표창장과 감사장으로 포상을 받은 일이 한 예다.

또한 지난해에는 사할린주한인회 25주년을 맞이하여 관련 행사들도 펼쳐졌다.

지난 12월에는 박순옥 사할린주한인회 회장이 한국국무총리 소속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다. 이로써 한국정부가 앞으로 사할린한인들의 문제해결에 더 많이 기울이지 않을까란 생각이 든다. 그 외에도 주한인회는 많은 행사와 사업을 실시해왔다. "여러분들의 협조와 협력이 없었으면 주한인회는 이 많은 것을 해낼 수가 없었다."며 박순옥 회장은 보고를 마무리했다.

재정보고는 전인자 감사위원장이 한 가운데 보고에 따르면 결산기간에 재정위반은 없었고 모든 보고서는 해당 기관에 제때에 제출되었다며 수입금과 지출내용을 자세히 보고했다.

지난해에 주한인회는 안톤 부유클릭에 있던 주한인회 소유의 옛 사무실을 사용하지도 않고

임대도 어려워 팔았다고 전했다.

사업보고 토론에 나선 사람들은 1년간 주한인회의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우글레고르스크한인회 강복숙 회장은 주한인회 회장이 우글레고르스크한인회에 대해 세심하게 살피지 않는 데다 지원금도 부족하다는 불만을 표했다. 이에 박순옥 회장은 지난해에 우글레고르스크한인회는 지방한인회 중에서 가장 많은 지원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 경허자 운영위원은 주한인회 25주년 행사 때 현재 활동하는 지방한인회장들에게 감사장을 수여했지만 장기간 열심히 사회사업을 해온 사람들 일부를 잊었다고 했다.

한편 주한인회 청년부를 맡은 박현성 씨는 자기 소개를 간단히 하고 주한인회 사업을 열심히 돕겠다고 했다.

김춘경 <소망>아동창작협회 회장은 주한인회와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가 서로 손잡고 활동했으면 하는 바람을 표했다.

김홍지 주노인회 회장은 2018년에도 계속 유골봉환 사업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한국측의 계획을 알렸다.

신연자 홀스크한인회 대표는 지난해 마카로브 <우리 함께>란 축제에 참가하여 많은 경험들을 공유할 수 있었다고 했다.

회의에서 우글레고르스크와 크라스노고르스크에서의 한글학교 문제도 논의되었다.

사할린주한국어교사협회 인나 코르베예와 회장은 한국어교사와 강사들을 위해 해마다 사할린국립대에서 교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와 세미나가 개최된다고 알리고 본 협회는 사할린국립대와 주한인회와 공동으로 한민족문화에 관한 정기 경시대회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또한 코르베예와 회장은 2월 10일 18시 한인문화센터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행사(k-pop 관련)가 있을 예정이라고 알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배포된 주한인회 2018년 사업계획안을 기초로 채택하고 지방한인회의 기획과 행사를 주한인회 계획안 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회의 후 지방한인회 회장들은 킨이 제작한, 사할린한인 1세대를 위한 <2018 세상에서 하나뿐인 달력>을 받았다.

(배순신기자)

이모저모

신년 첫 주간에 사할린주에서 신생아 111 명 출생

2018년 1월 1일부터 9일까지 사할린주의 산원들에서 여아 55명과 남아 56명이 태어났다. 대부분은 유즈노사할린스크시에서 출생했고 홀스크지역과 코르사코프지역도 3순위에 올라 선두에 섰다.

"연초에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산원에는 신생아 32명 출생 중 12명은 남아이다. 주로 새해방학기간 마지막 즈음에 집중하여 출생된 가운데 현재 10명의 남아와 산모가 퇴원한 상태다."라고 의료기관 산부인과 관찰부장인 타치야나 모로조와가 전했다.

출생아가 있는 많은 가정들은 새로운 사회정책 지원을 받으려고 하고 있다. 2018년 1월부터 러시아 연방에서는 젊은 가정에 첫 아이 출생 시 매월 보조금 지급이 규정되었다. 이에 상응한 법안에 러시아연방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은 12월 말에 서명했다.

보조금 지급은 가정의 수입과 관련하여 정해지

는데 금액은 해당지역에서 정한 아동 양육의 최저생활비 정도로 산출되었다. 2018년 사할린주에서는 1만4천 루블이 책정되었다. 이에 대한 상담은 각 지역사회복지기관에서 할 수 있다고 주보건부가 전했다.

В первые дни нового год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родилось 111 детей

С 1 по 9 января 2018 года в родильных отделениях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явились на свет 55 девочек и 56 мальчиков. Большая часть родов произошл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 тройке лидеров также Холмский и Корсаковский районы.

-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м городском роддоме с начала года появились на свет 32 ребенка, из них 12 мальчиков. Основной наплыв пришелся на последние дни. Выписано пока десять мам с малышами, - отметила заведующая акушерско-обсервационным отделением медучреждения Татьяна Морозова.

Многие семьи собираются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новой мерой социальной поддержки. С января 2018-го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ри рождении первенца молодым родителям предусмотрены ежемесячные выплаты.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й указ президент РФ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подписал в конце декабря.

Выплата адресная, назначается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дохода семьи. Сумма рассчитывается из размера прожиточного минимума на ребенка, установленного в регионе.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2018 году она составит более 14 тысяч рублей. Проконсультироваться по организационным вопросам можно в органах социальной защиты по месту жительства, сообщили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챔버 오케스트라, 새해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시작

1월 14일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챔버(교향)오케스트라(지휘 찌그란 아흐나자란)가 2018년 새로운 음악회 프로그램으로 정기음악회를 연다.

이번 공연에는 요한 스트라우스, 알렉산더 츠파스만, 조아키 로시니, 르로이 앤더슨, 재니스 조플린 등 음악가들의 극중 음악과 애호받는 클래식 히트곡들이 연주된다. 놀라움과 명절 분위기와 아름다운 향연을 확실하게 보여줄 것이라 기대한다.

공연은 사할린한인문화센터(주소: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프로스펙트 미라 83아)에서 18시에 열린다.

(8면에 계속)

2017년은 사할린한인사회계에 다양하고 중대한 행사들이 있었던 해였다.

1월 14일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추진하는 <사할린 잔류 1세대 동포 초청진료 사업>프로그램으로 최초로 사할린한인 1세 22명 가족보호자 16명의 인솔 하에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검진과 진료를 받기 위해 서울로 떠났다.

1월 18일-25일간 - KIN(지구공동포연대) 대표단이 사할린을 방문해 올해 마카로브, 비코브, 크라스노고르스크, 샤흐초르스크, 우글레고르스크 등지를 찾아 사할린동포 1세대들에게 <세상에서 하나뿐인 달력> 직접 전달. 2017 달력은 사할린 한인 1세들의 모습을 담은 새고려신문사 이에식 사진기자의 흑백 사진으로 제작했다.

1월 27일 - 음력설을 앞두고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제9동양어문학교에서 제2회 시동양언어축제 개최.

1월 27일 - 사할린주향토박물관에서 사할린한인 역사 주제로 <사할린땅에서의 무궁화 꽃>전람회가 개최.

1월 28일 - 음력설. 사할린주한인회 주최 음력설 행사 1월 27일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문화센터에서 개최, 사할린 여러 지방에서 음력설맞이행사 개최.

2월 11일 - <사할린 섬>체호브 책박물관에서 <사할린-한국: 3권의 책 이야기>문학의 밤 행사 개최. 사할린한인 관련 책 3권(아.쿠진의 <사할린 한인사>, 진 울리아의 <사할린의한인 디아스포라: 본국 송환 문제 및 소비에트와 러시아 사회로의 통합>한국어판, 류시욱(필명: 춘계)의 <산중반월기> 러어, 한국어 -양 언어 판) 소개.

2월 21일 - 사할린한국교육원 장원창 원장의 임기가 끝나 한국으로 귀국. 2월 15일부로 신임 사할린한국교육원 원장으로 김주환 씨가 부임.

3월 16일 - 유즈노사할린스크<가가린>호텔 연회장에서 민족통일대구시청년협의회,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의 주최로 <대구의 밤> 행사 개최. (주관: 유즈노사할린스크지역<소망>어린이창작발전협의회).

3월 17일 - 한국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충남아산갑)이 의원회관에서 영주귀국 사할린동포의 국내 거주·정착 지원을 위한 입법 토론회를 개최.

3월 중순 - 오스트리아에서 진행된 지적·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스포셜 올림픽에서 사할린을 대표한 우 왜 채슬라브 알핀스키 선수가 은-동 메달 획득.

3월 27일-4월 1일간 - 유즈노사할린스크 <에트노스>아동예술학교의 <개나리>무용단(담임교사 김 엠게니아)이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개최된 <지구의 미래>국제청소년창작축제콩쿠르에서 1등 차지.

3월 30일 - 사할린주 미술박물관에서 주명수 화가의 <사할린. 미의 세 면(스케치 인쇄, 사진, 아크릴)>전시회 개막.

4월 19일 - 제2차 사할린 잔류 1세대 동포 초청진료 사업을 위한 설명회를 한인문화센터에서 진행.

4월 22일 - 한국 부산의 40계단 문화관 전시실에서 이에식기자(사할린 새고려신문사)의 사진전 "귀환"이 개막.

4월 26일 - 사할린한인문화센터 회의실에서 제14차 사할린한인동포단체 대표자 회의(주최: 대한민국직접자사; 사할린, 블라디보스토크, 하바롭스크, 모스크바, 카자흐스탄 사할린한인 단체 대표들 참가)

4월 28일 - 사할린주정부·사할린국립대·사할린한국교육원 주최 아래 한국어말하기대회 개최. <한민족 언어의 아름다움과 지혜>란 주제로 발표.

4월 28일 - 사할린국립대에서 <한민족의 얼이 담긴 전래동화와 속담>이란 주제로 사할린주 한국학 경시대회 진행. 경시대회는 사할린주한인회와 사할린국립대 공동주최로 개최.

4월 29일 - 사할린에서 첫 라이온스클럽(가가린라이온스클럽, 회장 천영곤) 창립 1주년 기념행사 개최.

5월 5일 - 사할린주미술박물관에서 이철수 한국 목판화가의 <조화를 찾아>미술전 개막.

5월 9일 - 대조국전쟁의 승리의 날. 열병식을 포함, 사할린에서 다수의 행사 진행.

5월 9일 -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문재인 후보 당선.

5월 9일 - 처음 한국관광객들 1700여 명 태운 크루즈 사할린에 입항.

5월 11일-13일 - 사할린한인문화센터에서 세계한민족여성재단의 제6회 러시아 국제컨벤션을 개최. 대회에 세계 12개국 여성대표들 100여 명 참가.

5월 26일 - 한국 농어촌희망청소년오케스트라(키도), 사할린주청소년오케스트라와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켐버오케스트라와 합동 연주회를 <스톨리차>비즈니스센터 콩그레스 홀에서 개최.

6월 8일 - 2차 초청진료 프로그램으로 25명의 사할린 한인 1세 한국 방문. (국제보건의료재단 추진)

6월 15-17일간 -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제17회 러시아-한국-독립국가연합(CIS) 과학기술컨퍼런스 개최. 주최·주관은 전러시아고려인연합회,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대한민국), 사할린인문기술대학, 재러한인과학

2017년을 돌이켜보며

새고려신문에 게재된 사할린한인 사회계의 주요 사업·행사·사건·이벤트

기술자협회, <진보>우즈베키스탄과학기술자협회, <과학>카자흐스탄과학기술자협회. 컨퍼런스 일환으로 민족 정체성 문제를 가지고 토론회 진행.

7월 8일 - 제1회 <사할린의 여름>청소년 격투기경기 개최. 주최: <오스트로브>사할린주무술협회(회장 천영곤), 후원: 사할린주한인회.

7월 18-21일간 - 사할린주한인회와 주한인노인회의 공동주최로 제3회 사할린한인청소년 역사캠프 실시.

7월 22일 - 우글레고르스크 한인회와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 공동으로 우글레고르스크에서 주한인회 25주년 기념공연행사 개최.

7월 23일-26일간 - 투나이차 휴양소에서 동북아청소년협의회(한국)의 지원으로 <한국전통문화 계승 사할린 청소년 캠프> 진행(대상 코르사코브 학생들).

7월 27일 - 홈스크에서 <한 가정에서>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공연 개최. 사할린주한인회 주최, 사할린주정부 후원, 홈스크 시행정부·시한인회 협찬.

7월 29일 - 마카로브에서 <우리 함께> 제4회 민족간 축제를 개최.

7월 31일 - 한국 국회의원 송영길 의원을 수장으로 한 북방경제원정단이 사할린을 방문, 올레그 코제마코 주지사와 면담 갖고 협력문제 논의.

8월 1일 - 사할린한인문화센터에서 <제주두투나눔>탈놀이단체의 공연 진행.

8월 1일 - 다물운동본부(한국)의 제14차 민족통일 국토순례단이 사할린 방문.

8월 6일 - 유즈노사할린스크 제1공동묘지 사할린한인회생자 합동추모비 앞에서 제4회 일제강점기 사할린 징용희생자 추념식(주최: 부산우리민족서도돕기운동)

8월 8일 - 한국 유명 소설가 강석경 작가와의 만남 <문학의 밤> 개최. 강 작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프로그램으로 3개월간 사할린에 파견.

주최: 새고려신문사, 후원: 사할린한국교육원.

8월 11일 -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인문화센터 앞마당에 위치한 사할린한인 이중징용과부피해자비 제막 10주년 행사. 주최: 사할린한인이중징용과부유가족회(회장 서진길), 사할린주한인회(회장 박순옥)

8월 15일 - 광복절. 광복72주년 기념행사가 동포들이 사는 사할린주 내 곳곳에서 개최됨. 유즈노사할린스크시에서는 <스파르타크>운동장에서 19일 행사를 진행. 행사에 올레그 코제마코 참가, 세계적 팝아티스트 리리 출연.

8월 15일 - 광복절 역대 대통령의 경축사 중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이 최초로 사할린란 단어와 강제동원의 고통에 대해서 언급하여 사할린한인사회계가 환호 반응.

8월 15-17일간 한국노랑진수산시장을 주축으로 대표 10명이 사할린을 방문, 투자현장 파악.

8월 18일 - 이날 사할린동포 2세인 이채인 씨의 조국을 상대로 전달하는 메시지가 새고려신문에 게재되어 사할린한인 속에서 긍정적 응답과 공감을 얻음.

8월 20일 - 유즈노사할린스크 <스톨리차>비즈니스센터 콩그레스홀에서 한러 수교 27주년 기념 2017 사할린 한러우호축제 개최. 한국 측에서 유명한 솔리스트인 이연성 베이스, 박성희 소프라노, 한울림(김덕수패 사물놀이) 등이 공연. 주최: 주블라디보스토크대한민국총영사관 유즈노사할린스크출장소(소장 황명희)

8월 21일- 사할린한인문화센터에서 사할린주 올레그 코제마코 주지사가 사할린 한인들과의 만남을 가진.

8월 22-26일 - 대한민국 인천시 남동구에 위치한 남동구노인복지관 대표단이 사할린 방문, 사할린 한인단체 자들과 협력 협의.

8월 25일-9월 1일간 - <세계의 끝>사할린국제영화제 개최. 경연프로그램에 김기덕 감독의 <그물>영화 참가.

9월 1일 - 제24회 사할린강제동원 한인희생자 추념행사 개최. 주최: 한국 해외희생동포추념사업회(회장 이웅택).

9월 3일 - 한인문화센터에서 사할린주 설립 70주년, 한국·사할린문화교류 15주년 기념행사 (이혜미 가수의 <사할린동포 문화 사랑> 공연) 개최. 주최: 사할린주한인회, 우리말방송.

9월 3일 - 돌린스크에서 <한 가정에서> 주한인회 기획의 일환으로 공연을 진행.

9월 4일-10월 27일까지 인하대와 국립국어원이 선발한 한국어예비교원 및 경력 교원들이 실습 프로그램을 사할린에서 진행. 연수단은 사할린에서 많은 교육활동과 행사를 했음.

9월 7일 -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한러 우호 증진을 위

한 문재인 대통령 초청 오찬>이 개최되었음. 이에 사할린한인 대표 14명 초청 참석. 이 자리에서 사할린동포 청원서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

9월 8일 - 유즈노사할린스크시 135주년 기념행사를 찾아온 안산시와 경기도 광주 대표단이 사할린주한인회, 새고려신문사 찾아 협력 논의.

9월 9일 - 사할린주한인회 미니축구경기 개최. 도서팀 8개 참가.

9월 10일 - 사할린주두마 의원 선거 날. 주두마 의원으로 당선된 28명 중 한분은 30대의 사할린동포 최 유리다.

9월 13일 - 사할린 강제동원 한인 희생자 유골봉환추도와 환송식 앞두고 유골봉환 간담회 개최. 이날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측에서 사할린 관계자들에게 표창장과 감사패 수여가 있었음.

9월 14일 - 제5차 <사할린 강제동원 한인 희생자 유골 봉환 추도 및 환송식>. (한국으로 유골 12위 봉환).

9월 17일 - 유즈노사할린스크시 <모지나>문화회관에서 제2회 사할린아리랑제가 진행. 주최: 아리랑학회, 사할린 측에서 협찬: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 홈스크 한인회. 같은 공연 다음날 홈스크에서도 진행.

9월 28일 - 대한적십자사 처음으로 <사할린 2-3세대 모국방문>사업 진행. 이 사업으로 사할린한인 264명 8차에 걸쳐 한국방문.

9월 29일 - 사할린주미술박물관에서 사할린주 설립 70주년 기념 <전후 사할린: 교육, 문화 (1945-1964)> 전시회 개막. 전시에는 조선학교 물품 많이 소개.

10월 1일 - 우수 지방 지도자로 인정받은 네벨스크 시장 (사할린의 유일한 동포 시장) 박 블라디미르가 시장에서 사임.

10월 중순 - 사할린 태권도에서 이름이 날린 민태출 씨가 태권도 8단 선수로 확정. (국기원 증거).

10월 12-31일, 서울 로드스콜라 학생단 사할린 여행하며 동포들의 삶과 역사를 파악.

10월 27일 - 사할린한인문화센터에서 새고려신문사 이에식기자의 <사할린한인: 귀환>전시가 열려. 주최: 사할린주한인회, 협찬: 새고려신문사.

10월 28일 - 27인 한인피살자 추념비 (미주호 촌)에 대한 다큐멘터리 제작, 소개. 주최: 주한인회, 홈스크한인회, 홈스크시행정부.

10월 30일 - 사할린한국어교사 연수 실시. (주최: 사할린국립대, 사할린주한국어교사협회)

11월 2-4일 간 - 주유즈노사할린스크한국영사출장소(소장 황명희) 사할린 북부지역(우글레고르스크, 크라스노고르스크, 토말) 방문.

11월 3일 - 안산시의회 대표단 사할린방문. 유즈노사할린스크시의회, 사할린한인사회계 관계자 협력문제 논의.

11월 3일 - <한 가정에서>기획의 마감행사 사할린한인문화센터에서 개최.

11월 6일 - 홈스크한인회, 한민족전통문화예술 등을 소개하는 에트노클라스 세미나 개최.

11월 10일 - 새고려신문사 이에식 기자 사할린주두마로부터 표창장을 받음 .

11월 25일 - 사할린주한인회 25주년 행사. 제10회 사할린한민족 청소년 노래자랑. 주최: 사할린주한인회, 우리말방송.

11월 30일-12월 6일 - 한국 강원도교육청 대표단 사할린방문

12월 1일 - 코르사코브 망향의 언덕에서 사할린희생동포기념위령조각탑 건립 10주년 행사. 이에 참가하기 위해 이 탑을 세운 <한강포럼>단체 대표단이 사할린 방문.

12월 초부터 - 사할린한국출장소 사할린주한인회를 통해 1세 동포들에게 새해 선물 전달.

12월 10-12일간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대표단 (단장 인요한 이사장, 총 4명)이 사할린을 방문, 사할린주한인회 측과 2018년 초청진료 사업 추진 방안 협의.

12월 15일 - 사할린주언론인협회 60주년 행사에서 새고려신문과 우리말방송이 체호브상을 수상.

12월 16일 - 화성두레농악보존회의 <전통 예술의 향연>이 거행. 주최/주관 화성두레농악보존회, 사할린주한인회. 협찬: 새고려신문사

12월 25일 - 사할린주한인회 박순옥 회장 한국 국무총리 소속 재외동포정책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위촉.

12월 26일 -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 2017년 결산회의 소집.

(본사 편집부)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재외동포재단, 민족교육 경쟁력 강화 위해 '조선족학교 교사 초청연수' 개최

재외동포재단(이사장 한우성)은 조선족학교 교사의 역량 및 차세대 재중동포의 민족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국 조선족학교 교사 초청연수'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오는 10일(수)부터 24일(수)까지 2주간 충남 공주대학교 옥룡캠퍼스와 강원도 정선, 서울을 오가며 열리는 이번 연수에는 조선족 유치원 및 초등 조선어 교사 40명과 음악교사 22명 등 총 62명이 참가한다.

참가자들은 10일 환영식을 시작으로 한국의 조선어·음악교육 및 최신 교수법 강의를 듣게 된다. 또, 국내의 여러 교육기관을 방문하고 지역 문화 탐방, 한국 문화 실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민족성을 함양을 위한 시간을 갖는다.

특히, 참가자들은 연수기간 동안 유치원교육, 초등교육, 음악 3개의 전문화된 분반 수업에 참여해 집중 교육을 받게 된다.

지난해 진행된 연수에서 호평을 받았던 전통무용교육에 이어, 올해는 음악 교사를 초청해 전통음악교육을 받는다. 교육을 통해 음악과 전통문화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또, 청소년 심리상담 기법, 초등현직교사 중심의 미술·그림·음악 등을 활용한 교수법 특강 등 공통 프로그램과 각 분반별 한국어교수법 학습, 인근 지역 학교 방문 등 현장 활동도 함께 진행된다.

이외에도 정선 아리랑 박물관 견학, 국립한글박물관 한글 수업 및 전시 관람, 서울 문화 탐방 등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한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참가자들 간 교류를 위한 네트워킹 시간도 갖는다.

한우성 이사장은 "최근 조선족학교가 줄어들면서 차세대 재중동포의 우리말 교육이 점점 어려워지는 현실에 적극 대응하고 조선족학교의 경쟁력 강화가 더욱 필요하다"며, "참가자들이 이번 연수를 통해 교사로서 역량을 키우고 민족교육에 대한 소양을 강화해, 현지에서 민족 정체성을 함양하는데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재외동포재단 제공)

한국방문 체험수기 공모

새고려신문사는 한민족의 긍지와 동포애를 고취시키고, 한-사할린 교류의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방문기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응모자격: 대한민국 정부 지원으로 한국을 방문한 사할린 주민 누구나

공모부문: 한국방문 체험수기(글 종류 및 언어 무관)

작품주제: 모국방문(직접자사), 초청검진(국립국제보건의료재단), 재외동포재단 초청사업(한국어교사연수, 세계한인청소년(대학생)모국연수, 영비즈니스포럼, 세계한인차세대대회 등)을 통해 체험한 대한민국 방문 후기 및 소감

공모기간: 2018년 2월 9일까지 새고려신문사로 우편 및 메일 발송

시상내역: 상장 및 상금(최우수 1명-300달러, 우수-1명 200달러, 장려-2명 100달러) 수여 외 우수작은 새고려신문 게재 예정.

새고려신문사 기자 채용 공고

새고려신문사는 젊은 기자를 채용하고자 합니다. 러시아어로 취재, 한국어능력은 기초급이다. 컴퓨터는 기초, 러시아어 타자.

견습기간 3개월.

문의 전화: 43-67-85, 43-59-80.

본사편집부

레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риглашает желающих на работу на должность корреспондента (испытательный срок 3 месяца, знание корейского - начальный уровень).

Контактный телефон: 43-67-85, 43-59-80.

РООСК: отчет о работе за год

6 января в Корейском культурном центре состоялась отчетная годовая конференция РОО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Из 28 членов правления на конференции присутствовало 20 человек.

Президент РООСК Пак Сун Ок (Оксана Владимировна) отчиталась о работе организации за год.

Свой отчет она подготовила на основе тезисов предвыборной кампании.

Начала она с работы с 1-ым поколением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В прошедшем 2017 году 47 пожилых сахалинцев побывали в Корее по программе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здравоохранительного медицинского фонд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Лечение и диагностика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1-го поколения ко-



За отчетный период было проведено немало мероприятий, включая традиционные (празднование Нового года по лунному календарю, праздник Дружбы 15 августа), оказана помощь практически всем районным отделениям, районные отделения активизировали свою работу. Президент особо отметила деятельность председателей отделений Томари, Холмска, Долинска, Корсакова, Макарова. Пак Сун Ок побывала во всех проблемных районах.

Много мероприятий прошло в рамках 25-летия основания РООСК.

Одно из важнейших событий – это поездка сахалинской корейской общественности на встречу с президентом РК Мун Чжэ Ином во Владивосток.

Появилась надежда, что наконец-то проблемы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начнут решаться.

Этому, несомненно, будет способствовать тот факт, что в конце декабря прошлого года Пак Сун Ок была утверждена членом Комитета по политике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при премьер-министре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Деятельность РООСК члены конференции признали удовлетворительной.

В прениях некоторые высказали недовольство тем, что, по их мнению, мало внимания уделяется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их отделению, многие говорили, что проделан очень большой объем работы, кто-то говорил о необходимости более плодотвор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РООСК 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й организации корейцев.

Было сообщено также, что в 2018 г. работа по перезахоронению останков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в Южной Корее будет продолжена. Люди также говорили о хорошем обмене опытом между отделениями.

На конференции был заслушан подробный финансовый отчет ревизионной комиссии, а также принят за основу план работы организации на 2018 г.

Виктория Бя
Фото Ли Е Сик



рейцев, постоянно проживающих на Сахалине». Их сопровождали родственники. В конце ноября прошлого года Сахалин посетил президент вышеуказанного фонда, была достигнута договоренность о продолжении данной программы. Разъяснительное собрание состоится в феврале, а сама поездка планируется в марте-апреле. По словам президента РООСК, поездки по данной программе ожидает около 200 пожилых людей.

Продолжая тему пожилых людей, в данный момент на Сахалин возвращается немало людей, уехавших на ПМЖ в Республику Корея. И сейчас остро встает вопрос о необходимости строительства для людей преклонного возраста. Сейчас создается инициативная группа, а слушания по данному вопросу могут уже состояться в феврале.

В прошлом году РООСК выиграла два грантовых проекта («В семье единой», «Тайна села Мидзухо»), которые были успешно реализованы и отмечены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области. Пак Сун Ок также рассказала о деятельности корейского культурного центра(класс бабушек, класс Ханди, вокальная студия, группа Ханьиль, класс корейского танца), о ремонте здания центра, сообщила о том, что в РООСК наконец-то появился молодежный отдел, который возглавил 33-летний Пак Александр.

새고려신문 살리자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러시아에 사시는 분들은 이 계좌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2810750340100530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한국에서는: 농협중앙회 계좌번호 190-01-021311

예금주 BYA VIKTORIYA (본사 편집부)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реклама

Тел.: 50-00-50;
43-31-31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2018 год.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Сахалина.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 месяц - 75 руб. 79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53740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Юг и Север Кореи договорились продолжить переговоры об улучшении отношений

Юг и Север договорились провести переговоры по военным вопросам в целях предотвращения пограничных конфликтов. Северокорейская сторона направит на зимние Олимпийские игры в Пхёнчхан официальную делегацию, группу деятелей искусств и демонстрационную команду по тхэквондо, группу поддержки и журналистов. Более подробно вопросы участия СК в зимних Играх решено обсудить в ходе рабочих переговоров. Решено также продолжить переговоры на высоком уровне по вопросу улучшения межкорейских отношений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ю разногласий.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е договорённости были достигнуты в ходе состоявшихся во вторник в пограничном пункте Пханмунчжом межкорейских переговоров на министерском уровне. Они были зафиксированы в совместном заявлении. Стороны на переговорах представляли делегации из пяти человек во главе с министром по делам воссоединения РК Чо Мён Гюном и председателем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комитета по мирному объединению родины Ри Сон Гвоном. В течение дня состоялись четыре раунда переговоров. В самом их начал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РК предложили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стороне провести переговоры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Обществ Красного Креста Юга и Севера для организации в феврале встречи разделённых семей в честь праздника Нового года по лунному календарю, однако данный вопрос не обсуждался и не был включён в совместное заявление. В последнем раунде переговоров делегации участвовали в полном составе. Глава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делегации Ри Сон Гвон выразил недовольство, когда южнокорейски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затронули проблему денуклеаризации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Ранее в тот же день северокорейская сторона восстановила работу «горячей линии» между военными Юга и Севера, не работавшую около двух лет после закрытия Кэсонского индустриального комплекса. Как сообщил представитель министерства по делам воссоединения РК, северокорейская сторона сообщила об этом во время переговоров. Начиная со среды линия будет работать в нормальном режиме.

МОК продлил срок регистрации на Олимпийские игры в Пхёнчхане для спортсменов из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Международный олимпийский комитет (МОК) приветствует межкорейские контакты на высоком уровне, заявил в понедельник представитель комитета. Он отметил также, что МОК принял решение продлить срок регистрации на зимние Олимпийские Игры 2018 года для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спортсменов. На данный момент олимпийскую лицензию получили лишь фигуристы в парном катании. Однако она была отозвана из-за отсутствия решения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властей об участии в Олимпиаде. Теперь у спортсменов из СК появилась дополнительная возможность получить лицензии. В МОК также подчеркнули, что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м спортсменам будет оказана помощь в рамках соблюдения санкций ООН.

Президент РК Мун Чжэ Ин уделяет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повышению зарплаты

Президент РК Мун Чжэ Ин вновь подчеркнул важность реализации политики повышения минимального уровня зарплаты. Выступая 9 января на заседании со своими главными советниками и помощниками, Мун Чжэ Ин подчеркнул, что данная политика необходима для решения проблемы поляризации общества по уровню доходов и обеспечения достойного уровня жизни населения. Вместе с тем, президент указал, что можно ожидать кратковременного увеличения финансового бремени на малый и средний бизнес, связанного с оплатой труда. В этой связи возможно осложнение ситуации с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ом. Поэтому Мун Чжэ Ин призвал правительство без задержек обеспечить корректную работу фонда стабилизации рабочих мест и реализацию мер смягчения страховых взносов.

Корейская кухня получила высокую оценку среди иностранцев

Уровень узнаваемости корейской кухни среди иностранцев составил 64,1%, а уровень удовлетворённости 83,2%. Об этом свидетельствуют результаты онлайн-опроса, проведённого с 29 сентября по 20 октября Фондом корейской кухни среди 6 тысяч иностранцев в возрасте от 20 до 60 лет, проживающих в десяти крупнейших городах мира. Самый высокий уровень узнаваемости - 80% - отмечен среди жителей стран Юг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далее следуют Китай - 75%, США - 63%, Европа и Океания - 57,2%.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й показатель среди японцев составил лишь 32,8%. Что касается уровня удовлетворённости, то он тоже самый высокий среди респондентов в странах Юг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 88,6%. Далее следуют США, Европа, Океания и Китай. Показатель Японии - лишь 54,2%. (RKI)

Южная Корея объявила о визовых льготах для гостей Олимпиады

Власти Южной Кореи пошли на новые меры по привлечению на зимнюю Олимпиаду в Пхёнчхане иностранных гостей. Для тех, кто приедет в Корею, чтобы увидеть игры, длительность разрешенного пребывания будет увеличена на 30 дней. Это означает, что россияне смогут находиться в Корею до 90 дней, если у них будут билеты на Олимпийские игры.

О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визовых льготах в понедельник 8 января заявило министерство юстици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РК). Согласно информации ведомства, те, кто приедут в Корею, чтобы посмотреть Олимпиаду, получат право продлить срок своего обычного пребывания еще на 30 суток.

В отношениях между РФ и Южной Кореей с 1 января 2014 г. действует безвизовый режим для туристических и деловых поездок. Срок одновременного пребывания по такой схеме - до 60 суток. Теперь же, благодаря "олимпийским мерам", россиянам можно будет находиться до 90 суток.

Правда, как подчеркнули эксперты, эти меры распространяются только на тех, кто приедет исключительно с туристическими целями, именно на Олим-

пиаду и сможет это доказать путем предъявления купленных билетов на состязания.

В случае желания продлить срок пребывания необходимо обратиться в ближайший иммиграционный офис в Корею и предоставить необходимые документы, в частности, билеты на соревнования.

"Мы ожидаем, что больше всего желающих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этой системой и остаться у нас на месяц дольше будет среди тех, кто приедет по краткосрочной визе, либо по безвизовому режиму. Мы надеемся, что эта мера позволит оживить туризм", - заявили в министерстве юстиции РК.

Напомним, что ранее власти Кореи уже обнародовали пакет мер, которые облегчили въезд в страну на время Олимпиады в Пхёнчхане граждан стран Юг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и Китая. По словам источников, близких к Оргкомитету ОИ-2018, пока есть некоторые проблемы с продажей билетов на ряд "непопулярных" состязаний Олимпиады, а потому корейские организаторы возлагают большие надежды на приток иностранных болельщиков.

(Олег Кирьянов, РГ)

Южная Корея удивит технологиями будущего на Олимпиаде в Пхёнчхане

Роботы, мобильная связь поколения 5 G, искусственный интеллект и многое другое... Как сообщили в Оргкомитете зимних Олимпийских и Паралимпийских игр в Пхёнчхане, Южная Корея намерена использовать это мероприятие мирового масштаба, чтобы удивить иностранцев уровнем развития корейских технологий, показав заранее те новинки, которые начнут действовать в Корею уже в ближайшем будущем.

Одно из главных новшеств, которое предложат на ОИ-2018 - технология мобильной связи 5 G. Если в ряде стран действуют еще технологии 3 G или лишь идет внедрение 4 G, то Южная Корея намерена начать коммерческое применение 5 G уже с 2020 г. А на Олимпиаде всем будет предложено оценить преимущества этой технологии, которая позволяет передавать в 40 раз больше информации за то же время, чем сети с 4 G LTE. Крупнейший южнокорейский оператор мобильной связи Korea Telekom обещает, что в рамках технологии 5 G будет возможность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различными новинками, включая виртуальную реальность на 360 градусов, "двойной экран", получить эффект присутствия прямо на поле спортивных состязаний и другое.

Другая ожидаемая новинка Олимпиады в Пхёнчхане - роботы. Робота HUBO уже доверили нести олимпийский огонь, с чем он прекрасно справился, а во время ОИ-2018 роботы будут активно помогать как спортсменам, так и участникам. Компания LG Electronics собирается удивить двумя видами роботов. Одни будут выполнять функции гидов для людей и могут общаться на четырех языках, помогая участникам игр найти те или иные объекты либо получить необ-

ходимую информацию. Второй вид роботов будет активно задействован для уборки спортивных объектов. По словам создателей, у роботов будет своя программа, они смогут работать полностью автономно, не требуя контроля со стороны человека.

Другой робот будет задействован как переводчик. В нем применена функция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и установлена программа перевода GenieTalk. Как заверили в Оргкомитете, эти роботы смогут говорить в том числе и на русском языке. Для удобства людей машины смогут имитировать человеческую мимику и эмоции, чтобы люди чувствовали, что общаются не с бездушной машиной, а с другим человеком.

"Наша страна давно известна своими высокими технологиями. Надеемся, что мы сможем поддержать этот имидж и даже чем-то удивить тех, кто к нам приедет в гости. Мы обещаем самую высокотехнологичную Олимпиаду в истории", - сказали в Оргкомитете ОИ-2018.

(Олег Кирьянов, РГ)

사할린한국교육원 직원 채용 공고

사할린한국교육원은 현지 채용 직원을 아래와 같이 선발합니다.

- 아래 -

- 1) 모집 직종: 사무원
 - 통번역
 - 각종 행정업무
- 2) 지원자격
 - 가. 2018년 1월 1일 기준 만50세 미만 (1968.1.1 이후 출생자)
 - 나. 러시아 국적자
 - 다. 한국어 통번역 가능자: 한국어능력시험 (TOPIK) 인증자 우대
 - 라. 컴퓨터활용능력 보유자 우대: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한글 등
 - 마. 사할린한인동포 사회에 기여자 우대
- 3) 채용기간: 2018.2.1. ~ 4.30. (3개월 수습)
 - * 3개월 수습 기간 후 정식 계약(1년 단위)

- 4) 선발절차
 - 가. 서류전형
 - 제출서류:
 - 공통: 이력서(교육원 제공 양식), 여권사본
 - 우대서류: 한국어능력시험 인증서
 - 컴퓨터능력활용 자격증(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등)
 - 서류제출 기간: 2018.1.9.(화)~1.24.(수) 16:00
 - 제출방법: 한국교육원 방문 접수
 - 나. 면접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서 3배수 면접 * 1.26. (금) 면접 대상자 통보
 - 면접일시: 2018.1. 29.(월) 10:00
 - 최종발표: 2018.1. 30(화) (예정)
- 5) 문의처: 사할린 한국교육원
 - 주소: 유즈노사할린스크시 미라거리 83-A
 - 전화: 505696



2018년

무술년

	1월 음력 11-12월					2월 음력 12-1월					3월 음력 1-2월					
월	1 11.15	8 22	15 29	22 6	29 13			5 20	12 27	19 4	26 11		5 18	12 25	19 3	26 10
화	2 16	9 23	16 30	23 7	30 14			6 21	13 28	20 5	27 12		6 19	13 26	20 4	27 11
수	3 17	10 24	17 12.1	24 8	31 15			7 22	14 29	21 6	28 13		7 20	14 27	21 5	28 12
목	4 18	11 25	18 2	25 9			1 12.16	8 23	15 30	22 7		1 1.14	8 21	15 28	22 6	29 13
금	5 19	12 26	19 3	26 10			2 17	9 24	16 1.1	23 8		2 15	9 22	16 29	23 7	30 14
토	6 20	13 27	20 4	27 11			3 18	10 25	17 2	24 9		3 16	10 23	17 2.1	24 8	31 15
일	7 21	14 28	21 5	28 12			4 19	11 26	18 3	25 10		4 17	11 24	18 2	25 9	
	4월 음력 2-3월					5월 음력 3-4월					6월 음력 4-5월					
월		2 17	9 24	16 3.1	23 8	30 15		7 22	14 29	21 7	28 14		4 21	11 28	18 5	25 12
화		3 18	10 25	17 2	24 9		1 3.16	8 23	15 4.1	22 8	29 15		5 22	12 29	19 6	26 13
수		4 19	11 26	18 3	25 10		2 17	9 24	16 2	23 9	30 16		6 23	13 30	20 7	27 14
목		5 20	12 27	19 4	26 11		3 18	10 25	17 3	24 10	31 17		7 24	14 5.1	21 8	28 15
금		6 21	13 28	20 5	27 12		4 19	11 26	18 4	25 11		1 4.18	8 25	15 2	22 9	29 16
토		7 22	14 29	21 6	28 13		5 20	12 27	19 5	26 12		2 19	9 26	16 3	23 10	30 17
일	1 2.16	8 23	15 30	22 7	29 14		6 21	13 28	20 6	27 13		3 20	10 27	17 4	24 11	
	7월 음력 5-6월					8월 음력 6-7월					9월 음력 7-8월					
월		2 19	9 26	16 4	23 11	30 18		6 25	13 3	20 10	27 17		3 24	10 8.1	17 8	24 15
화		3 20	10 27	17 5	24 12	31 19		7 26	14 4	21 11	28 18		4 25	11 2	18 9	25 16
수		4 21	11 28	18 6	25 13		1 6.20	8 27	15 5	22 12	29 19		5 26	12 3	19 10	26 17
목		5 22	12 29	19 7	26 14		2 21	9 28	16 6	23 13	30 20		6 27	13 4	20 11	27 18
금		6 23	13 6.1	20 8	27 15		3 22	10 29	17 7	24 14	31 21		7 28	14 5	21 12	28 19
토		7 24	14 2	21 9	28 16		4 23	11 7.1	18 8	25 15		1 7.22	8 29	15 6	22 13	29 20
일	1 5.18	8 25	15 3	22 10	29 17		5 24	12 2	19 9	26 16		2 23	9 30	16 7	23 14	30 21
	10월 음력 8-9월					11월 음력 9-10월					12월 음력 10-11월					
월	1 8.22	8 29	15 7	22 14	29 21		5 28	12 5	19 12	26 19		3 26	10 4	17 11	24 18	31 25
화	2 23	9 9.1	16 8	23 15	30 22		6 29	13 6	20 13	27 20		4 27	11 5	18 12	25 19	
수	3 24	10 2	17 9	24 16	31 23		7 30	14 7	21 14	28 21		5 28	12 6	19 13	26 20	
목	4 25	11 3	18 10	25 17		1 9.24	8 10.1	15 8	22 15	29 22		6 29	13 7	20 14	27 21	
금	5 26	12 4	19 11	26 18		2 25	9 2	16 9	23 16	30 23		7 11.1	14 8	21 15	28 22	
토	6 27	13 5	20 12	27 19		3 26	10 3	17 10	24 17		1 10.24	8 2	15 9	22 16	29 23	
일	7 28	14 6	21 13	28 20		4 27	11 4	18 11	25 18		2 25	9 3	16 10	23 17	30 24	

- 음력설 2.16
- 한식 4.6
- 단오 6.18
- 초복 7.17
- 중복 7.27
- 말복 8.16
- 추석 9.24
- 성탄절 12.25

절기 소대입우 경춘 청곡입소 망하소대입처백추한상입소대동
 한한춘수칩분명우하만중지서서추서로분로강동설설지
 월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11 11 12 12
 (양력) 일 5 20 4 19 6 21 5 20 5 21 6 21 7 23 7 23 8 23 8 23 7 22 7 22



<기획> 사할린에 우리 동포가 있다

문 대통령 약속에도... 사할린 귀국동포들의 겨울은 매섭다

인천사할린동포회관은 대한민국 정부의 위탁을 받아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한다. 홈페이지에 소개된 정원은 100명. 현재 동포 어르신 86명이 거주하고 있다. 노환을 겪는 고령의 동포 어르신들이 요양보호사를 비롯해 회관 직원 등의 도움을 받아 기거하는 국내 유일의 '사할린 영주귀국 동포 전문 요양시설'이다.

하지만 위상에 비해 운영은 그리 녹록지 않다. 올해부터 일본 정부의 '인도적 재정지원'이 끊기자 동포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는 물론 직원들의 고용도 불안정한 상황. 그럼에도 정부와 인천광역시, 연수구 등은 현장을 직접 점검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회관은 설립 이래 최악의 재정절벽에 내몰리고 있다.

이와 관련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와 러시아 방문을 통해 직접 여러 차례 사할린 동포들의 처우개선을 언급한 바 있다. 그렇다면 현실은 얼마나 변했나? 여전히 동포들의 상황은 열악하다. 대통령의 발언 이후에도 뚜렷한 개선의 여지가 감지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국민적 관심마저 낮다. 회관 측은 후원계좌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지만 후원금이 매우 미비하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재정지원에 기대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것. 재정이 빠듯한 회관은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

더욱 나빠질 전망이다. 다음은 지난 5일 기자가 김 관장과 만나 나눈 인터뷰 내용이다.

"사할린 동포 1세, '지원 기준' 없다고 예산 줬다 안 줬다..."

- 회관의 설립취지와 현재 상황은?

"(일제가) 전쟁에 져서 사할린이 사회주의(소련)가 되면서 올 수 없게 됐잖아요. 왔다 갔다 해야 하는데 아예 단절이 됐잖아요? 사할린 어르신들이 고국에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소련이 붕괴되면서 한일정부하고 양국 적십자끼리 서로 합의해서 영주귀국하고 싶은 분들을 올 수 있게 하도록 했습니다. 사는 동안에 고국에 와서 살다가 돌아가시는 게 꿈이라니 그렇게 했는데.

1989년도, 1994년도에 양국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영주귀국대상자가 45년 8월 15일까지 출생하신 분이잖아요. 거기에 거주하셨던, 그분들을 1세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입소대상이 된 거죠. 그래서 사할린 영주귀국하시는 분들을 위한 생활시설로 적십자 땅에 요양시설을 짓게 된 거죠. 아픔을 위로하는 차원이고 국가에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된 거죠."

- 운영상황은 어떤지?

"정부에서 이 회관 설립 당시는 시설 운영비 전반을 지원하는 걸로 하고 적십자사에 위탁을 한 거예요. 인도주



▲ 인천사할린동포복지회관 언덕을 오르면 처음으로 보이는 인천사할린동포복지회관의 전경. 노인보호구역이라고 적힌 팻말이 눈에 잘 들어온다.

했어. 2017년도에 한 12억으로 운영을 한 거죠. 런데 지금 상황이 (어려워요) 어르신들이 연세도 많으셔서 다 질환자 분들이예요. 최근에는 전국 임대 아파트 24개 곳에 사시는 동포 분들 중 치매환자나 아니면 암환자 같은 중증 질환자 분 등 아파트에서 살 수 없는 분들만 들어오고 계세요. 일손이 굉장히 달리죠. 오히려 요양보호사를 더 투입해야 하는데 정부에서는 예산을 삭감했어. 작년에 일본 지원금 3억 중에서 2억을 겨우 어렵게 확보했는데.

지난 11월 15일 구청에서 통보를 받았습시다. 금년도 예산에서 1억 5천 정도를 삭감했어. 그래서 지금 어떻게 재원을 마련해서 운영을 해야 할지 굉장히 고민하고 있어요. 금년도는 구청에서 지원해주기로 해서 구청에 예산안을 올렸는데. 금년도에 2억으로 프로그램 운영비, 어르신들 간식비니 그런 부분 다해서 어렵게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금년도 예산을 딱 잘라가지고 통보를 받으니까 지금은 막막한 상황이에요.

더구나 (동포들이) 제2의 이산가족이 된 거잖아요. 가족도 없고요. 사할린이나 멀리 러시아에 흩어져 있는 가족들이 있고. 돌아가시면 (자식을 대신해) 상주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희생하면서 어렵게 3교대까지 하면서 모시고 있는데. 일반 요양시설, 장기요양시설은 어르신들 2.5명 당 요양보호사가 1명이예요. 그런데 우리는 8명 당 밤에 (요양보호사를) 2명씩 운영하잖아 굉장히 힘들죠. 갈수록 치매 환자분들이 들어오셔서 어떻게 해야 할지. 그래서 저희가 2층으로 시설을 옮겼어요. 치매 어르신들이 나가서 길 잃어버리고 파출소에서 연락 오고 그래서요. 2층으로 모셔서 직원들이 관심있게 돌보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정원이 100명인데 현재는 86명입니다. 어떤 이유가 있나요?

"(홈페이지에는) 100명인데 (수용할 수 있는) 정원이 90명이예요. 처음 건물 지을 당시에는 100명이었어요. 일본정부에서 지원금을 줬잖아요. 일본에서 지원받을 때는 100명으로 해서 지원을 받은 거예요. 작년까지만 해도 100명으로 했는데. 금년 5월에 연수구청에서 정원을 노인복지법에 맞게 하라고 해서 (법에 따라 평수별 인원수용에 맞게) 90명으로 정정을 했어요. 90명인데 현재 86명이 계시고. 어르신들

이 돌아가시고 바깥에서 아파트생활이 어려우면 다시 여기로 들어오시고 하는 거니까요. 전국에서 유일하잖아요. 사할린 동포 어르신 분들만 모시고 있는 요양시설이. 어르신들이 서로 동질감을 느끼셔서 일반 장기요양시설로 잘 안 가죠. 회관으로 오시려고 하죠. 그래야 외롭지 않잖아요."

- 일반 장기요양시설로 가시는 분도 계신가요?

"거의 대부분이 여기로 오세요. 그런데 대창양로원의 양로시설에도 계세요. 이 건물 짓기 이전부터 계시던 분들은 한 15분 사신다고 해요. 초창기, 회관이 개원하기 이전에 들어오신 분들이라 거기 그냥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대창양로원 (경상북도 고령군 소재, 1993년에 설립된 국내 최초의 사할린 동포 양로시설)

-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후원계좌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와 일본정부의 재정지원이 끊겨 재정마련이 곤란하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후원금만으로 시설을 운영하기에는 벅찬 상황인가요?

"홈페이지에 올리긴 했는데. 아주 미미하죠. 얼마 되지 않고요. 여기 자원봉사 오시는 분들 많아요. 가까운 인천 지역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간간이 100만 원, 연말쯤 되면 200만 원 보내주세요. 계좌는 개설했습니다만 최근에는 후원을 거의 못 받고 있어요. 간간이 들어오는 후원금을 가지고 전액 다 어르신들을 위해서 급식비, 간식비에 쓰죠. 인천시에서도 작년부터 간식비를 주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은 후원을 받아서 투입을 하고 있죠.

여기는 특이한 게요. 가족들이 없으니 전체가 기초생활수급자예요. 저희가 병원비나 간병비, 이런 소소한 의료비들도 후원금으로 해드렸거든요. 그런데 작년부터 일본서 지원이 끊겨서 재정도 어렵고 하니까요. 이제는 어르신들 노령연금으로 진료비, 간식비 대신이라 하고 있어요. 어르신들 반발이 많죠. 처음에는 국가에서 다 책임지겠다고 해서 영주귀국 했는데. 요즘은 본인 연금으로 '생필품 사다 쓰세요'해요. 하다못해 '휴지도 사서 쓰세요'하니까. 요즘에는 부족한 물품은 사서 쓰시라고 하고 있어요. 재정이 어려우니까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

(오마이뉴스, 박명훈 시민기자)



▲ 인천사할린동포복지회관 회관에서 어르신들을 위해 진행하는 프로그램.

다. 이에 대해 김정영 인천사할린동포복지회관 관장은 다음과 같이 호소한다.

"사할린 동포 1세 분들, 회관 입소하시는 분들을 장기요양시설처럼 기준을 뒀으면 좋겠다. (다른 장기요양시설에는) 법에 따라 1등급, 2등급, 3등급 (동등급)이 있다. 보건복지부에 질의했을 때에는 (사할린 동포는) '특수계층'이라 불가능하다고 했다. 정부에서 기준을 마련해 뒀으면 좋겠다. 3등급 기준으로 지원하면 운영은 문제가 없다. 기준이 없어서 공무원에 따라 (예산) 줬다 안 줬다 한다. 복지부에서 어르신들 지원 기준을 마련해달라." - 김정영 인천사할린동포복지회관 관장의 말.

김 관장은 왜 위와 같은 말을 해야만 했을까? 회관 운영이, 사할린 동포 어르신들의 처지가 열악하던 절박함에서다. 회관에 대한 국가의 제도, 항구적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상황은 갈수록

의사업을 하고 있는 적십자사에 맡아달라고 해서요. (1999년도에 문을 열었으니까) 19년 가까이 되죠 회관운영을 한 지. 그동안 돌아가신 분들이 200명 가까이 되는데. 여기는 국고로 운영되거든요. 작년까지는 일본 지원금으로 재원의 20% 상당을 지원받아 국고지원금과 합쳐서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금년, 2017년도부터는 이 회관에 대한 재정지원을 일본정부에서 중단했어. 한국정부에서 맡아 지원을 하는 걸로요. 외교적 함의로 국고 지원으로 전환해 가는 과정에서 참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일본 지원금이 전기료하고 요양보호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작년 3억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주어야 하잖아요. 그래야 유지가 되는데 (중단되면서) 그거 안된 거예요. 그래서 청와대나 국회의원들, 보건복지부에 (연락) 해서 2억 정도 지원을 확보

이모저모

(2면의 계속)

1월 14일 좋아하는 곡들을 듣지 못한 분들을 2월 15일 19시에 <로지나>문화회관으로 초대한다고 오케스트라 홍보실은 전했다.

Южно-Сахалинский камерный оркестр начинает год новой программой

14 января Южно-Сахалинский камерный (симфонический) оркестр под управлением Тиграна Ахназаряна открывает цикл музыкальных встреч-2018 новой концертной программой.

Прозвучат любимые хиты классической и эстрадной музыки от И.Штрауса, А.Цфасмана, Дж.Россини, Л.Андерсона, С.Джоплина и других композиторов. Сюрпризы, праздничная атмосфера и прекрасное настроение гарантированы.

Концерт состоится в 18 часов в Сахалинском корейском культурном центре по адресу: Южно-Сахалинск, проспект Мира, 83а.

Тех, кто не сможет послушать любимые мелодии на Старый Новый год, приглашают 15 февраля в ДК "Родина" в 19 часов,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оркестра.

체호브에 대한 강연에 유즈노사할린스크 시민들을 초대

1월 18일과 25일 17시 <사할린 섬> 체호브 문학 예술 책박물관에서 강연이 진행된다.

1월 29일은 안톤 파블로비치 체호브의 생일이다. 이와 관련하여 <사할린 섬>박물관에서 러시아 작가의 삶과 작품 창작에 대한 강연이 열린다.

<타간록에서 태어났다.>란 강의에서는 안톤 프블로비치의 삶의 경로, 작가적 재능의 생성과 물론, 사할린 여행에 대해서도 알 수 있다. 또한 체호브 가족이 어떻게 파산을 겪었는지, 안톤 파블로비치가 타간록에서 모스크바로 간 친척들을 돕기 위해 개인 교습을 한 것에 대해, 의사면허증을 받은 체호브가 작가가 된 동기, 그리고 위대한 작가의 경력에 또다른 재미있는 사실들을 방청객들이 알게 될 것이라고 박물관 홍보실은 전했다.

Южносахалинцам предлагают послушать лекции о Чехове

18 и 25 января в 17:00 в литературно-художественном музее книги Чехова "Остров Сахалин" пройдут лекции.

29 января — день рождения Антона Павловича Чехова. По этому случаю в музее "Остров Сахалин" пройдут лекции, на которых расскажут о жизни и творчестве

русского писателя.

На лекции "Родился в Таганроге" можно будет узнать о жизненном пути Антона Павловича, становлении его писательского таланта и, конечно, поездке на Сахалин.

Слушателям расскажут о том, как семья Чеховых прошла через разорение, как Антон Павлович давал частные уроки, чтобы помочь родным, уехавшим из Таганрога в Москву. Посетители музейной лектория узнают причины, по которым Чехов, получивший диплом врача, становится писателем, а также другие интересные факты биографии великого классика,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музея.

<고르니 워스두호>스키장, 새해 방학 기간에 3만 3천여 명이 방문

사할린의 가장 큰 스키리조트 <고르니 워스두호>는 새해 활동의 총결산을 발표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8일까지 스키리조트 단지를 찾은 이용객은 3만 3천 명이 넘었고 스키장 이용문을 총 20만 번 통과했다. 이와 같은 큰 지표에 이른 것은 산에 눈이 많이 내려 최대한의 스키 코스를 준비할 수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산악스키어와 스노우보더들은 서쪽에서 북쪽, 남쪽과 동쪽으로 이동하느라 지루해질 여유도 없었다. 이외에도 이들을 위한 대중 행사들이 펼쳐졌다. 추위할아버지와 백설공주의 스키 하강, 첫 아동 눈 카니발, <누가 더 긴장감 있게 타나? 스키선수 아니면 스노우드선수?>, <저녁 별들의 속삭임>경기 등이 펼쳐졌다.

현재 스포츠관광단지는 평일 9시부터 21시까지,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9시부터 22시까지 개장한다.

«Горный воздух» принял на новогодних каникулах более 33 тысяч человек

Самый крупный сахалинский горнолыжный курорт «Горный воздух» подвел итоги новогодней кампании.

Как стало известно, с 1 по 8 января комплекс посетили более 33 тысяч человек, которые прошли через турникеты 200 тысяч раз. Такие солидные показатели были достигнуты в том числе потому, что на склоны выпало много снега и это позволило подготовить максимальное количество трасс. Любители горных лыж и сноубордов не успевали скучать, переезжая с Запада на Север, Юг и Восток. Кроме того, для них провели массовые мероприятия: спуск Дедов Морозов и Снегурочек, первый детский снежный карнавал, состязания «Кто круче – лыжник или сноубордист», «Вечерний шепот звезд».

Теперь СТК работает с 09:00 до 21:00 в будние дни, а с пятницы до воскресенья – с 09:00 до 22:00.

(사할린주 및 러시아 언론기관 자료들에서)

제 57회 한국어능력시험 실시 공고

1. 목적

가. 재외동포. 외국인의 한국어 학습 방향 제시 및 한국어 보급 확대

나. 한국어 능력을 측정. 평가하여 그 결과를 국내 대학 유학 및 취업 등에 활용

2. 대상 :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 및 재외동포

3. 일시 : 2018. 4. 15(일) 09:30~16:00

가. TOPIK I : 오전 / TOPIK II : 오후

나. 입실시간 : 매 교시 30분 전

구분	교시	영역	입실 시간	시작	종료	시험 시간 (분)
TOPIK I	1교시	듣기 읽기	09:10	09:40	11:20	100
TOPIK II	1교시	듣기 쓰기	12:20	12:50	14:40	110
	2교시	읽기	15:00	15:10	16:20	70

4. 장소 및 시행처 : 사할린한국교육원

5. 원서교부 및 접수

가. 일시 : 2018. 1.9 ~ 2018. 1.31

나. 장소 :

교부장소	주소	전화
사할린 한국교육원	유즈노사할린스크 미라 83-A	505696

6. 응시 수수료 : 300루블, 사진 2매 (3*4)

7. 시험결과 발표 : 2018. 5.24 이후

SAKH.COM БИЛЕТ

Билеты на концерты, в театр, кино
Покупай онлайн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사장(주필) 배 워토리아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4: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1: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53740 Тираж 13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
--	---	--	---	--	--